



“생물권보전지역 탐방하며 생태 만끽해요”

고창 예향천리 마실길 운곡 생태습지 걷기행사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운곡람사르습지 5km코스를 걸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람사르 습지를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4일 고인들공원과 운곡습지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군의원, 김국재 교육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와 더불어 국화길을 따라 운곡습지까지 걸으며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운곡람사르습지 일원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으로 자연환경

이 잘 보전된 환경가치의 중요한 보고로서 식물종 376종, 곤충 390종, 파충류 12종, 조류 51종 포유류 11종 등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1급 수달, 멸종 위기종 2급인 삵·담비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예향천리 마실길과 연계한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등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자연 벗삼아 마실길 걷다

고창 생태습지서 행사

생물권보전지역을 탐방하면서 자연생태를 만끽할 수 있는 '예향천리 마실길 운곡 생태습지 걷기행사'가 지난 4일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일원에서 펼쳐졌다.

박우정 군수를 비롯 최인규 군의장, 군의원, 김국제 교육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운곡탐사르습지 5km코스를 걸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도를 높였다.

운곡탐사르습지 일원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환경가치의 중요한 보고로서 식물종 376종, 곤충 390종, 파충류 12종, 조류 51종 포유류 11종 등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1급 수달, 멸종 위기종 2급인 삿·담비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환경자원을 가진 것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잘 활용해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적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이곳에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 및 경관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

전북중앙

2016년 11월 07일 월요일
009면 지역

고창군 운곡람사르 습지 걷기행사

고창군은 지난 4일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군의원, 김국재 교육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곡람사르습지 5km코스를 걸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람사르 습지를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와 더불어 국화길을 따라 운곡습지까지 걸으며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군은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예향천리마실길과 연계한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등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고창=김준완기자

새만금일보

2016/11/07 월요일

008면 지역

고창군 자연생태환경 만끽!

운곡람사르습지 걷기행사

고창군이 운곡람사르습지 5km코스를 걸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람사르 습지를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4일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군의원, 김국재 교육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들 비롯한 주민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국화축제'와 더불어 국화길을 따라 운곡습지까지 걸으며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군은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예향천리 마실길과 연계한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등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5km코스 걷기행사 개최

고창군이 운곡 람사르습지 5km코스를 걸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 람사르습지를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4일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일원에서 열린 행사는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군의원, 김국재 교육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와 더불어 국화길을 따라 운곡습지까지 걸으며,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박우정 군수는 "운곡 람사르습지를 잘 활용해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적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현 기자

자연생태환경 느끼며, 가을 정취 만끽해요

고창, 운곡람사르 습지 걷기행사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운곡람사르습지 5km코스를 걸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람사르습지를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4일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군의원, 김국재 교육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와 더불어 국화길을

따라 운곡습지까지 걸으며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운곡람사르습지 일원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환경가치의 중요한 보고로서 식물종 376종, 곤충 390종, 파충류 12종, 조류 51종 포유류 11종 등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1급 수달, 멸종 위기종 2급인 살·담비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운곡습지를 중심

으로 예향천리 마실길과 연계한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등 총 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환경자원을 가진 것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잘 활용해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적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조종욱 기자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탐방, 자연생태 '만끽'

예향천리 마실길 운곡 생태습지 걷기행사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운곡람사르습지 5km코스를 걸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람사르습지를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4일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군의원, 김국재 교육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와 더불어 국화길을 따라 운곡습지까지 걸으며 천혜의 자

연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운곡람사르습지 일원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환경가치의 중요한 보고로서 식물종 376종, 곤충 390종, 파충류 12종, 조류 51종 포유류 11종 등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1급 수달, 멸종 위기종 2급인 삵·담비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운곡습지를 중심으

로 예향천리 마실길과 연계한 생태 체험지구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1사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등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환경자원을 가진 것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잘 활용해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적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정관진 기자



고창군은 4일 운곡람사르 습지 5km코스를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가졌다.

고창군 제공

고창 운곡 생태습지 걷기행사 성황

1천300여명 참석 체험 만끽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4일 운곡람사르습지 5km코스를 걸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람사르 습지를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4일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군의원, 김국재 교육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

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천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와 더불어 국화길을 따라 운곡습지까지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운곡람사르습지 일원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환경가치의 중요한 보고로서 식물종 376종, 곤충 390종, 파충류 12종, 조류 51종 포유류 11종 등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1급 수달, 멸종 위기종 2급인 삵·담비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예방천리마실길과 연계한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등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전국 > 전북

고창 운곡 생태습지서 걷기행사...1000여명 참여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6-11-04 15:13:36 송고



전북 고창군은 4일 아산면 운곡습지에서 '생태탐방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정 고창군수를 비롯해 최인규 군의장, 군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 학생 및 지역 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우정 고창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제철 기자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4일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일원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람사르 습지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과 군의원, 김국재 교육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와 더불어 국화길을 따라 운곡습지까지 5km 걸으며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운곡람사르습지 일원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환경가치의 중요한 곳으로 식물종 376종, 곤충 390종, 파충류 12종, 조류 51종 포유류 11종 등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1급 수달, 멸종 위기종 2급인 삼·담비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고창군 운곡습지 걷기 체험행사. ©News1 박재철 기자

군은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예향천리 마실길과 연계한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등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환경자원을 가진 것은 매우 특별하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잘 활용해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적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연생태 만끽해요"...운곡 생태습지 걷기행사

등록 : 2016-11-04 19:53 수정 : 2016-11-04 19:53



전북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람사르 습지를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걷기행사에 모인 군민들. <사진제공=고창군>

(고창=포커스뉴스) 전북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람사르 습지를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4일 개최했다.

고인돌공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군의원, 김국재 교육장,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화축제의 국화길을 따라 운곡습지까지 걸으며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운곡람사르 습지 일원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환경가치의 중요한 보고로서 식물종 376종, 곤충 390종 등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1급 수달, 멸종 위기종 2급인 삶·담비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간과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적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bule2737@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린트

취소



고창, 걷기행사 '성황' 고창군이 운곡람사르습지 5km코스를 걸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운곡람사르 습지를 체험하는 걷기행사를 개최했다.